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의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특성

문 영 은 진 성 오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의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강박군 18명, 성범죄 집단 35명, 정상군 36명에게 성적 인지 질문지(SCQ)와 침투적 인지 질문지 -Sex version(ROI-v)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긍정적인 성적인지는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인지는 강박장애환자가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더 많이 경험하였다. 둘째,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는 정상인보다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셋째, 강박장애환자가 정상인과 성 범죄자보다 도덕성융합 과 사고의 통제 차원에서 인지적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사고통제방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넷째, 성 범죄자는 정상인과 강박장애환자보다 가능성융합 '차원에서 인지적 평가 점수가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강박장애환자가 성적 인지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아 이질적이며, 불쾌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침투사고의 발생을 더 현저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이라고 느끼므로 보다 현저하게 침투사고를 경험한다. 또한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에서의 가능성융합(likelihood TAF)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신념으로, 원치 않는 침투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치료접근을 위해 임상군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치료 및 관여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강박장애환자, 성 범죄자, 성적 인지, 성적 침투사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 명 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24 / E-mail : hyunmh@cau.ac.kr

사람은 누구나 성적 인지를 즐긴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일생 동안 성에 관한 사고, 상상, 환상, 백일몽 등을 즐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윤가현, 1998).

여기서 성적 인지(sexual cognition)란 성적 사고(sexual thought), 성적 이미지(sexual image), 성적 환상(sexual fantasy)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Renaud & Byers, 2001). 성적 인지는 매력적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생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Renaud & Byers, 1999). 성적 인지를 받아들이기 쉽고, 유쾌하며, 자아-동질적으로 경험할 경우에 이를 긍정적인 성적인지라 하며,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쾌하며, 자아-이질적으로 경험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성적인지라 한다(Little & Byers, 2000; Renaud & Byers, 1999, 2001). 정상인은 부정적인 성적인지보다 긍정적인 성적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Langevin, Lang, & Curnoe, 1998; Little & Byers, 2000; Renaud & Byers, 1999, 2001),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성적 인지를 갖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며, 사고의 경험빈도도 현저하게 낮다. 이는 정상인 피험자의 29%(Davidson, & Hoffmen, 1986)에서 남성피험자의 31%(Zimmer, Borchardt, & Fischle, 1983)가 성적 인지를 갖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었다.

Langevin, Lang 및 Curnoe(1998)는 성 범죄자가 긍정적인 성적인지에서는 정상인과 현저한 차이가 없었지만, 부정적인 성적인지에서는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성 범죄자와 부정적인 성적인지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129명의 피험자의 52.7%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Marshall, Barbaree,

& Eccles, 1991), 강간범으로 구성된 피험자의 66%에서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가학적 행위와 관련된 성적 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ton, 1973). 또한 Prentky 등(1989)은 25명의 상습적 성 살인범(3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을 강간한 후 살인하는 경우)과 17명의 일회적 성 살인범(1명의 사람을 강간한 후 살인하는 경우)의 부정적인 성적인지(강간, 살인 또는 강간을 포함한 살인에 대한 성적 인지)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피험자의 52%가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가지고 있으나, 상습적 성 살인범의 비율은 86%이며 일회적 성 살인범의 비율은 23%에 이른다. 이는 상습적 성 살인범이 일회적 성 살인범보다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며, 성적 인지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다 더 조직적이고 정교하다고 할 수 있다(Deu & Edelman, 1997).

긍정적인 성적인지는 긍정적인 정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신체적·성적 각성을 경험하며, 성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즉, 성 경험이 많으며, 성생활이 만족스러운 상태이고, 성적 불안이 낮다(Renaud & Byers, 2001). 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생각이며, 부정적인 성적인지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성적인지는 의도적으로 경험하며, 성적 인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적게 나타난다(Little & Byers, 2000; Renaud & Byers, 2001).

이에 반해 부정적인 성적인지는 부정적인 정동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각이며, 성적 인지를 침투적으로 경험하고, 성적 인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Little, & Byers, 2000; Renaud, & Byers, 2001). 이렇듯 성적 인지에 대하여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며,

비도덕적이라고 평가할수록 (Cado & Leitenberg, 1990), 성적 인지에 대해 보다 더 저항적이며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Cado, & Leitenberg, 1990; Follingstad, & Kimbrell, 1986). 대표적으로, 강박장애환자는 성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사고통제가 힘들뿐만 아니라 침투빈도가 더욱 높다(Freeston, Ladouceur, Thibodeau, & Gagnon, 1991; Niler, & Beck, 1989).

이와 같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원치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현상을 침투사고(intrusive thought)라 하며 (Clark, & Purdon, 1995; Johnston, Ward, & Hudson, 1997), 침투사고는 정상인의 80%이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Rachman, & de Silva, 1978; Salkovskis, & Harrison, 1984). Edwards와 Dickerson(1987)은 긍정적인 침투사고와 부정적인 침투사고의 특징을 알기 위해 연구한 결과, 두 유형의 침투사고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했지만, 경험의 양상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긍정적인 침투사고는 받아들이기 쉬우며, 즐겁고 유쾌한 경험으로, 긍정적인 침투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은 임상적 함의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침투사고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쾌하며, 원치 않는 특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의도와는 무관하게 원치 않는 침투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은 다양한 심리장애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Byers, Purdon, & Clark, 1998; Edward, & Dickerson, 1987).

침투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병리적 현상은 강박장애이다. 강박장애환자는 정상인보다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시도하며, 침투사고의 보고가 더 빈번하고, 인지적

통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그리고 원치 않는 침투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다(Janeck, & Calamari, 1999; Purdon, & Clark, 1994; Smari, Sigurjonsdottir, & Saemundsdottir, 1994). Tolin, Abramowitz, Przeworski 및 Foa(2002)는 강박장애환자가 정상인과 불안장애환자보다 침투사고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ibbs(1996)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강박장애환자가 보이는 강박사고는 침투사고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적 현상이다(Rachman, 1997, 1998; Salkovskis, 1989; Salkovskis, Richards, & Forrester, 1995), 침투사고를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사고통제방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빈도나 강도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Salkovskis, 1985, 1989). Rachman (1997, 1998)과 Salkovskis(1985, 1989)는 인지행동적 이론에 근거하여 침투사고의 악순환적인 강화와 지속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침투사고에 대한 오류적인 평가의 결과 때문에 불편감이나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고통제방략을 사용하지만, 이는 오히려 침투사고의 발생을 더 현저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부적응적인 사고통제방략의 사용으로, 침투사고에 대한 오류적인 평가를 반복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Freeston, & Ladouceur, 1993; Freeston, Ladouceur, Provencher, & Blais, 1995).

예를 들어, 이승수(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로는 행위와 사고의 윤리성을 동등하게 여기는 '도덕성융합'과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고의 통제'에서 오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평가하였으며, 사고통제방략으로는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성적 침투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에 있어서 죄책감이 높거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활성화되

어 있는 집단일수록 그와 반대되는 집단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인지적 평가 점수가 높았고, 사고 통제에 있어서는 자책 또는 회피 방략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강박장애 환자가 성적 인지에 대해 보다 더 저항적이며, 받아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편감을 경험하며, 이를 떨쳐버리고자 하는 노력을 과도하게 유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는 성 범죄자에게 성적 공격 행동을 일으키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한다(Laws, 1989; Marshall, & Barbaree, 1989). Gold와 Clegg(1990)은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거나 강제적인 성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적 인지는 보다 두드러지며, 정서적이고, 지배적이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성적 공격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인지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인지 왜곡이며 다른 하나는 인지 왜곡 현상을 포함한 침투사고이다.

먼저, 강간에 대한 행동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으로는 강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이 두드러진다(Malamuth, 1981). 요컨대,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성적 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남성보다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 (Greendinger, & Byrne, 1987; Marshall, Barbaree, & Eccles, 1991). 즉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현저하게 경험하는 성 범죄자는 여자 또는 아동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해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Hatch-Maillette, Scalora, Huss, & Baumgartner, 2001; Johnston, Ward, & Hudson, 1997). 성 범죄자의 인지적 왜곡은 매우 일반적인 양상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특징을 보인다(Hatch-Maillette et al., 2001; Tierney, & McCabe, 2001). 또한 인지 왜곡 현상은 성 범죄자에게 희생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공감 능력의 부족은 병리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Clark, 1980), 성 범죄자는 정상인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Lisak, & Ivan, 1995; Rice, Chaplin, Harris, & Coutts, 1994). 이러한 공감능력의 부족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심리적(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기제이며(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희생자에게 가한 위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현상이다(Hoppe, & Singer, 1976). 따라서 인지 왜곡 현상으로 인한 일탈된 성적 각성(deviant sexual arousal)의 유발과 희생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은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Abel, Barlow, Blanchard, & Guild, 1977; Rice et al., 1994; Serin, Mailloux, & Malcolm, 2001).

이와 더불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거나 강제적인 성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Gold, & Clegg, 1990). 즉, 성 범죄자일수록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빈도가 높고, 성적 각성도 현저하며, 이를 행동화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진다(Byers, Purdon, & Clark, 1998; Johnston, Ward, & Hudson, 1997). 특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상황이거나 강한 정동 상태일 경우, 이들은 성적 공격 행동의 행동가능성이 증가한다(Pithers, 1990).

White(1979)는 성적 자극에 대한 부정적 정동의 연합의 결과로 공격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성적 자극에 대하여 부정적 정동을 경험한 남성은 긍정적 정동을 경험한 남성보다 그 후에 공격 행동이 자주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인지적 노력은 오히려 의도와는 반대로 성적 인지에 대한 인지적 접근성을 증가시켜, 침투사고의 발생을 현저하게 한다(Johnston, Ward, & Hudson, 1997).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에서의 가능성융합(likelihood TAF)은 사고 행위융합(thought-action fusion, TAF)을 포함한다(이한주, 1999). 가능성융합(likelihood TAF)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신념으로(이한주, 1999), 원치 않는 침투사고가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적 편향을 의미하며, 원치 않는 침투사고에 대한 행동가능성을 시사해준다(Clark, Purdon, & Byers, 2000; Johnston, Ward, & Hudson, 1997; Laws, 1989). 따라서 성 범죄자의 부정적인 성적 인지에 대한 사고억제의 시도는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더 접근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빈도와 심각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안하였다(Marshall, & Barbaree, 1989).

본 연구에서는 성적 인지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Leitenberg와 Henning(1995)의 이론을 토대로, 동일한 성적 인지가 다른 양식의 인지 과정을 통해 다양한 성적 행동으로 발전하는가를 알아보고자, 정상인, 강박장애환자,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적 인지 유형에 따른 양상과 심화된 인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 동안 모호하게 다루어져 왔던 성적 인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유형을 정교화하기 위해 임상 집단간 성적 인지의 하위 유형별 경험빈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Langevin, Lang, & Curnoe, 1998; Little, & Byers, 2000; Renaud, & Byers, 1999, 2001), 긍정적인 성적인지는 정상인과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인지는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가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인, 강박장애환자, 성 범죄자간의 긍정적인 성적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대한 오류적인 인지 평가와 부적응적인 사고통제방략의 사용은 침투사고의 발생을 더 현저하도록 만든다. 즉, 강박장애환자의 성적 인지에 대한 인지 평가로는 '도덕성융합'과 '사고의 통제'에서 과대 평가하며, 사고통제방략에서는 '부정적 회피방략'을 과도하게 사용함을 가정한다. 또한 성 범죄자는 성적 인지에 대해 '가능성융합'에서 오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평가함으로 인해 침투사고를 현저하게 경험함을 가정한다. 이와 더불어 성 범죄자가 희생자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적게 경험한다는 Finkelhor와 Lewis(1988)의 연구를 통해 성 범죄자가 다른 집단보다 자책방략을 적게 사용함을 가정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와 사고통제방략에서 집단(정상인, 강박장애환자, 성 범죄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정상인 36명, 강박장애환자 18명, 성 범죄자 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정상 통제 집단으로는 서울의 C대학교 부산의 P대학교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4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총 36명의 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강박장애환자는 DSM-IV에 의거하여 강박장애로 진단된 환자로, 서울, 부산, 마산 등의 정신과 병원에 외래치료 중인 18명의 환자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M 교도소, P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있는 범죄자 12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성 범죄자 49명 중 최종적으로 총 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세 집단의 평균 연령, 성 경험 및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 도구

성적 인지 질문지

성적 인지 질문지(Sexual Cognitions Checklist: SCC)는 Renaud와 Byers(1999)가 개발한 5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로, 동일한 성적 인지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정도와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정도를 함께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질문지의 40문항은 Wilson의 성적 환상 질문지(Wilson Sex Fantasy Questionnaire)에서 가지고 왔으며, 나머지 16문항은 침투적 인지 질문지-Sex version(ROII-v2)에서 가지고 왔다. Renaud와 Byers(1999)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ROII-v2의 16문항을 수정하였다. 예컨대, 긍정적인 성적인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Renaud와 Byers(1999)는 “협오스러운 방법으로 성기에 자극을 주거나 자극

을 받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을 “성기에 자극을 주거나 자극을 받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적 인지 질문지(SCC)의 하위척도인 긍정적인 성적인지 질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 α (Cronbach's α 이하생략)는 각각 .97, .99였다.

침투적 인지 질문지 -Sex version

침투적 인지 질문지 -Sex version(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Sex version: 이하 ROII-v2)은 6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비성적 침투사고와 성적 침투사고의 문항에 따른 경험빈도와 인지적 평가, 사고통제방략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질문지이다. ROII-v2는 Purdon과 Clark(1993, 1994)에 의해서 개발된 침투적 인지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이하 ROII)에 기초하여 개발된 질문지로 ROII에서의 성적 침투사고를 묻는 7문항이 ROII-v2에서는 20문항으로 확장되었다. ROII-v2에서는 성적 침투사고를 측정하는 20문항을 다루고 있으며, 그 경험빈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ROII-v2는 성적 침투사고의 20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한 후, 그 중 가장 불편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한 가지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인지적 평가와 사고통제방략을 사용하는지를 질문한다. 본 연구에서 ROII-v2의 신뢰도 계수 α 는 .97였다.

표 1.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상(n=36)	OCD(n=18)	성범죄자(n=35)
연령	25.3(3.7)	29.1(7.4)	31.6(12.2)
성경험(유)	52.9%	70.6%	100%
종교(유)	58.3%	47.1%	82.4%

인지평가 질문지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Interpretation of Intrusion Inventory-31(III-31)을 이한주(1999)가 수정하여, III-단축형을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III-31은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의 주요 세 차원(사고의 중요성, 사고의 통제,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평가 차원 가운데에서 사고의 중요성 차원을 도덕성 융합과 가능성 융합으로 나누어 총 3가지 차원(가능성융합, 도덕성융합, 사고의 통제)을 바탕으로 인지적 평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3가지 차원의 인지적 평가는 각 3문항씩으로 총 9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평가의 신뢰도 계수 α 는 .87였다.

사고통제방략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하승수(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책방략과 이한주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중성적 회피방략, 부정적 회피방략의 3가지 종류의 사고통제방략(중성적 회피방략, 부정적 회피방략, 자책방략)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가지 종류의 사고통제방략은 각 3문항씩으로 총 9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고통제방략의 신뢰도 계수 α 는 .91였다.

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선행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성적 인지 질문지(SCC)와 침투적 인지 질문지-Sex version(ROII-v2)을 본 연구자가 1차로 번안하였으며, 번안한 내용에 대해서 3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검토하고 논의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1차 수정을 거친 문항은

번역사 자격증 소지자와 한국어에 능숙한 영어권 외국인에게 2차 수정작업을 거치게 하였다. 원 질문지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5점 척도로 개정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한 결과, 성적 인지 질문지(SCC)의 두 하위척도인 긍정적인 성적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의 신뢰도 계수 α 는 각각 .96, .98였다. 침투적 인지 질문지-Sex version(ROII-v2)에서 성적 침투사고의 신뢰도 계수 α 는 .94였다. 그리고 인지적 평가와 사고통제방략의 신뢰도 계수 α 는 각각 .89, .89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학과 병원,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병원에 오는 강박장애환자 중 설문에 동의한 환자에게 집에 돌아가 설문을 하게하고 동봉하여 병원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성 범죄자는 집단 면접 조사 방식으로, 교도관이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 뒤 수거하였다. 각 피험자가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성적 인지 질문지(SCC), 침투적 인지 질문지-Sex version(ROII-v2)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

자료 분석

통계적 검증은 SPSSWIN 1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세 집단간 긍정적인 성적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의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다변량분석)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Tukey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빈도와 인지적 평가 그리고 사고통제방략에서의 세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변량분석)를 다수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Tukey를 실시하였다.

결 과

성적 인지(긍정 대 부정)에 대한 빈도

성적 인지에 대한 빈도 평정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적 인지의 두 하위요인인 긍정적인 성적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대한 경험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인 성적인지, $F(2, 86)=10.567, p<.05$, 부정적인 성적인지, $F(2, 86)=10.673, p<.05$. 긍정총합의 결정계수(Adjusted R Square)는 .179로 전체분산 중에서 17.9%를 설명하였으며, 부정총합의 결정계수(Adjusted R Square)는 .180로 전체분산중에서 18%를 설명하였다.

사후분석(Tukey's Multiple Comparisons) 결과 긍정적인 성적인지는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인지에서는 강박장애환자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

게 더 높았다.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에 대한 빈도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에 대한 빈도 평정에서는 표 3과 같이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 86)=14.291, p<.05$. 사후분석(Tukey's Multiple Comparisons) 결과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가 정상인보다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

표 4는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인지적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도덕성 융합, 사고의 통제, 가능성 융합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덕성 융합, $F(2, 86)=4.419, p<.05$, 사고의 통제, $F(2, 86)=8.104, p<.05$, 가능성 융합, $F(2, 86)=7.653, p<.05$.

표 2. 성적 인지의 다변량분석 결과

성적인지	정상인 M(SD)	강박장애 M(SD)	성범죄자 M(SD)	F값	사후비교
긍정적인 성적인지	63.47 (27.41)	70.33 (27.97)	98.23 (39.78)	10.567 *	1,2/3
부정적인 성적인지	59.28 (46.03)	124.39 (42.98)	81.66 (54.08)	10.673 *	1,3/2

* $p<.05$ (1=정상인, 2=강박장애환자, 3=성 범죄자)

표 3.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변량분석 결과

	정상인 M(SD)	강박장애 M(SD)	성범죄자 M(SD)	F값	사후비교
부정적인 성적침투사고	11.78 (11.75)	28.00 (16.40)	31.94 (20.30)	14.291 *	1/2,3

* $p<.05$ (1=정상인, 2=강박장애환자, 3=성 범죄자)

표 4. 인지적 평가의 변량분석 결과

인지적평가	정상인 M(SD)	강박장애 M(SD)	성범죄자 M(SD)	F값	사후비교
도덕성융합	4.39 (3.22)	6.78 (3.19)	4.57 (2.48)	4.419 *	2/1,3
사고의통제	3.58 (2.98)	6.94 (2.98)	4.66 (2.75)	8.104 *	2/1,3
가능성융합	3.06 (2.69)	3.67 (2.14)	5.49 (2.89)	7.653 *	1,2/3

* $p < .05$ (1=정상인, 2=강박장애환자, 3=성 범죄자)

사후분석(Tukey's Multiple Comparisons)결과 도덕성 융합과 사고의 통제 차원은 강박장애환자가, 가능성 융합 차원은 성 범죄자가 다른 집단보다 인지적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사후분석(Tukey's Multiple Comparisons)결과 강박장애환자가 정상인보다 부정적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하지만 중성적 회피방략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86)=1.974, ns$.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사고통제방략

표 5는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의 사고통제방략에 대한 결과이다.

부정적 회피방략, 자책방략에서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 회피방략, $F(2, 86)=6.145, p < .05$, 자책방략, $F(2, 86)=3.987,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심한 불편감과 불안을 야기하는 원치 않는 성적 인지의 인지적 과정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강박장애환자와 성

표 5. 사고통제방략의 변량분석 결과

사고 통제방략	정상인 M(SD)	강박장애 M(SD)	성범죄자 M(SD)	F값	사후비교
중성적 회피방략	5.36 (2.95)	6.94 (2.51)	6.11 (2.81)	1.974	
부정적 회피방략	4.25 (2.81)	6.94 (2.24)	5.57 (2.84)	6.145 *	1/2
자책방략	4.08 (2.62)	6.22 (3.19)	5.66 (3.20)	3.987 *	1/2

* $p < .05$ (1=정상인, 2=강박장애환자, 3=성 범죄자)

범죄자의 인지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긍정적인 성적 인지는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 인지는 강박 장애환자가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더 많이 경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성적 인지와 관련하여 정상인과 성 범죄자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부정적인 성적 인지에서는 성 범죄자가 현저하게 경험한다는 Langevin, Lang 및 Curnoe (199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측정도구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Langevin 등 (1998)이 사용한 Clarke Sex History Questionnaire (SHQ) Fantasy Scale는 정상적인 성적 행동과 관련된 성적 인지와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사회에서 수용하는 성적 행위에서 현저하게 구분되는 성행위)과 관련된 성적 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성적 인지 문항에 대해 피험자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성적인지나 부정적인 성적인지로 결정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즉, 성적 인지 질문지(SCC)는 성적 인지 문항에 관하여 가치판단개입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인지 왜곡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성 범죄자가 긍정적인 성적인지와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성범죄를 정상 성행위로 잘못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자(Gold & Clegg, 1990; Greendinger, & Byrne, 1987; Marshall, Barbaree, & Eccles, 1991)의 입장과 일치한다. 즉,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현저하게 경험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성 범죄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편향을 보인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강박장애환자는 성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편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성적 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강박장애환자의 강박사고는 의식수준에서 보다 현저하며, 떨쳐버리거나 중단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불편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한다(Niler, & Beck, 1989; Salkovskis, & Harrison, 1984). 더욱이 자신의 가치체계에 어긋나는 내용일수록 더욱 그 내용을 혐오스럽고 불편한 것으로 경험하며, 침투 빈도도 더욱 높다(Cado, & Leitenberg, 1990; Follingstad, & Kimbrell, 1986). 따라서 강박장애환자는 성적 인지를 자신의 신념체계와 상충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생각의 내용 뿐 아니라 생각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도 강렬한 불편감을 경험함으로써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그 동안 모호하게 다루어져 왔던 성적 인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유형을 정교화하였다. 즉, 성적 인지의 하위 유형별 경험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왜곡 현상을 포괄하여 연구하지 못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연구함으로써, 성적 인지의 개념적 특성이나 하위 유형 분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임상 표본까지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임상 집단간 성적 인지 유형에 따른 양상을 검증함으로써, 성적 인지의 하위 유형 연구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는 정상인보다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강박장애환자와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를 현저하게 경험한다. 강박장애환자는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아-이질적이며, 불쾌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오히려 침투사고의 발생을 더 현저하도록 만든다. 이와 더불어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집착하는 이유로, Johnston, Ward 및 Hudson(1997)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성적인지가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이라고 느끼므로 그러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과도한 노력을 시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원치 않는 사고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Langevin, Lang, & Curnoe, 1998; Laws, 1989; Marshall, & Barbaree, 1989). 이렇듯 원치 않는 성적 인지의 빈번한 발생은 성과 관련된 보다 심각한 행동양상 및 병리적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Curnoe, & Langevin, 2002; Johnston, Ward, & Hudson, 1997).

셋째, 강박장애환자가 정상인과 성 범죄자보다 '도덕성융합'과 '사고의 통제' 차원에서 인지적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사고통제방략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성적 인지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성적 침투사고를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강박장애환자가 성적 인지에 대하여 '도덕성'과 '사고의 통제'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 보다 경직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통해, 동일한 성적 인지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의 구분에서 도덕적 기준이 그 핵심요소로 적용되며, 성적 인지를 얼마나 경험하는지에 관하여는 사고의 통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의 강박사고에 대해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것으로 경험할수록 이러한 강박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성 범죄자는 정상인과 강박장애환자보다 '가능성융합' 차원에서 인지적 평가 점수가 높았다. 즉,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능성융합' 차원에서 성 범죄자가 다른 두 집단보다 오류적인 해석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대한 행동가능성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성범죄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Deu와 Edelmann(1997) 및 MacCullough 등(1983)의 연구와 연상선상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 범죄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임상적인 차원으로 부정적인 성적인지에 대한 행동가능성을 제안한 선행연구자들의 입장을 검증한 경험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성 범죄자의 사고통제방략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는 성 범죄자가 범죄행동을 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자기조절을 중지하거나 사고통제를 고의적으로 완화시키는 인지적 과정을 보인다고 제안하였다(Dennison, Stough, & Birgden, 2001; Johnston, Ward, & Hudson, 1997; Ward, Hudson, & Marshall, 199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가 부정적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정상인보다 부정적 회피방략과 자책방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성 범죄자의 인지적 양상이 인지 왜곡으로 인한 자신들의 성범죄를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성적 인지를 불편하게 느끼며 이를 통제하려는 인지적 현상인 침투사고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

적 침투사고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박장애환자는 성적 인지를 보다 부정적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침투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침투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불안, 불편감,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동을 현저하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강박장애환자가 보이는 주된 인지 양상은 침투사고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 범죄자가 보이는 주된 인지 양상은 인지 왜곡 현상을 포함한 침투사고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 왜곡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성 범죄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성적인지를 현저하게 경험하였는데, 이는 부정적인 성적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인지 왜곡 현상으로 인함이다. 또한 성 범죄자가 부정적인 성적인지의 빈번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회피방략이나 자책방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통해, 침투사고와도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 범죄자는 부정적인 성적 침투사고를 현저하게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성 범죄자는 성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 범죄자의 섹슈얼리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군의 특성에 맞춘 차별적인 치료방법을 적용하면 기존의 임상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치료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료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성적 인지 질문지(SCC)와 침투적 인지 질문지-Sex version(ROI-v2)의 척도 개발에 있어서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보다 광범위한 임상 표본을 바탕으로 표준화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로서 질문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험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여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응답하거나 건성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외변인을 통제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 범죄자의 인지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성 범죄자의 인지 과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요인의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 범죄자의 인지 양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검증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강박장애환자나 성 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적인 내용의 강박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생성 강박장애환자와 일탈된 성적 인지(deviant sexual cognition)가 현저한 상습적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취약성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한주 (1999).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한주, 신민섭, 김중술, 권준수 (200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 임상집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57-74.
- 하승수 (2002). 성(性)적인 침투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대처.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Abel, G. G., Barlow, D. H., Blanchard, E. B., & Guild, D. (1977). The components of rapists' sexual arou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8), 895-903.
- Byers, E. S., Purdon, C., & Clark, D. A. (1998). Sexual intrusive thought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4), 359-369.
- Cado, S., & Leitenberg, H. (1990). Guilt reactions to sexual fantasies during intercour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9(1), 49-63.
- Clark, K. B. (1980). Empathy: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2), 187-190.
- Clark, D. A., & Purdon, C. L. (1995). The assessment of unwanted intrusive thoughts: a review and critique of the literatu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8), 967-976.
- Clark, D. A., Purdon, C. L., & Byers, E. S. (2000). Appraisal and control of sexual and non-sexual intrusive thoughts in university stud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5), 439-455.
- Curnoe, S., & Langevin, R. (2002). Personality and deviant sexual fantasies: An examination of the MMPIs. *Journal Clinical Psychology*, 58(7), 803-815.
- Davidson, J. K., & Hoffman, L. E. (1986). Sexual fantasies and sexual satisfac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erotic thought. *Journal of Sex Research*, 22(2), 184-205.
- Dennison, S. M., Stough, C., & Birgden, A. (2001). The big 5 dimensional personality approach to understanding sex offenders. *Psychology, Crime and Law*, 7(3), 243-261.
- Deu, N., & Edelman, R. J. (1997). The role of criminal fantasy in predatory and opportunist sex offend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8-29.
- Edwards, S., & Dickerson, M. (1987). On the similarity of positive and negative intr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5(3), 207-211.
- Finkelhor, D., & Lewis, I. A. (1988). An epidemiologic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 molestation. In R. A. Prentsky & V. L. Quinsey (Eds.), *Human sexual aggression: Current perspectives (Vol. 528, pp. 64-78)*.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Follingstad, D. R., & Kimbrell, C. D. (1986). Sex fantasies revisited: An expansion and further clarification of variables affecting sex fantasy produ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6), 475-486.
-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3). Appraisal of cognitive intrusions and response style: replication and exten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2), 185-191.
- Freeston, M. H., Ladouceur, R., Provencher, M., & Blais, F. (1995). Strategies used with intrusive thoughts; Context, appraisal, mood, and efficac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9(3),

- 201-215.
- Freeston, M. H., Ladouceur, R., Thibodeau, N., & Gagnon, F. (1991). Cognitive intrusions in a non-clinical population. I. Response style, subjective experience, and appraisa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9(6), 585-597.
- Gibbs, N. A. (1996). Non-clinical populations in research 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rit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729-773.
- Gold, S. R., & Clegg, C. L. (1990). Sexual fantasies of college students with coercive experiences and coercive attitud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4), 464-473.
- Greendlinger, V.,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e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1), 1-11.
- Hatch-Maillette, M. A., Scalora, M. J., Huss, M. T., & Baumgartner, J. V. (2001). Criminal thinking patterns: Are child molesters uniqu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1), 102-117.
- Hoppe, C. M., & Singer, R. D. (1976). Overcontrolled hostility, empathy, and egocentric balance in violent and nonviolent psychiatric offenders. *Psychological Reports*, 39(3), 1303-1308.
- Janeck, A. S., & Calamari, J. E. (1999). Thought suppres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5), 497-509.
- Johnston, L., Ward, T., & Hudson, S. M. (1997). Deviant sexual thoughts: Mental control and th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4(2), 121-130.
- Langevin, R., Lang, R. A., & Curnoe, S. (1998). The prevalence of sex offenders with deviant fantas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3), 315-323.
- Laws, D. R. (1989). (Ed.). *Relapse prevention with sexual offenders*. New York: Guilford.
- Leitenberg, H., & Henning, K. (1995). Sexual fantasy.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69-496.
- Lisak, D., & Ivan, C. (1995). Deficits in intimacy and empathy in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3), 296-308.
- Little, C. A., & Byers, E. S. (2000).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exual cogni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9(3), 167-179.
- MacCullough, M. J., Snowden, P. R., Wood, P. J., & Mills, H. E. (1983). Sadistic fantasy, sadistic behaviour and offending.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20-29.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4), 138-157.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89). Sexual violence. In K. Howells & C. R. Hollin (Eds.), *Clinical approaches to violence* (pp. 205-246). New York: Wiley.
- Marshall, W. L., Barbaree, H. E., & Eccles, A. (1991). Early onset and deviant sexuality in child moles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23-335.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2), 99-113.
- Milton, J. (1973). The role of fantasy in the use of erotica. In K. Goldstein (Ed.), *Pornography and*

- sexual deviance* (pp. 122-13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iler, E. R., & Beck, S. J. (1989). The relationship among guilt, dysphoria, anxiety and obsessions in a normal popul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3), 213-220.
- Pithers, W. D. (1990). Relapse prevention with sexual aggressors: A method for maintaining therapeutic gain and enhancing external supervision.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 343-361). New York: Plenum.
- Prentky, R. A., Burgess, A. W., Rokous, F., Lee, A., Hartman, C., Ressler, R., & Douglas, J. (1989). The presumptive role of fantasy in serial sexual hom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7), 887-891.
- Purdon, C., & Clark, D. A. (1994). Obsessive intrusive thoughts in nonclinical subjects. Part II. Cognitive appraisal, emotional response and thought control strateg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4), 403-410.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9), 793-802.
-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385-401.
- Rachman, S., & de Silva, P. (1978).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6(4), 233-248.
- Renaud, C. A., & Byers, E. S. (1999). Exploring the frequency, diversity, and content of university students' positive and negative sexual cognition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8(1), 17-30.
- Renaud, C. A., & Byers, E. S. (2001). Positive and negative sexual cognitions: Subjective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to sexual adjustmen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8(3), 252-262.
- Rice, M. E., Chaplin, T. C., Harris, G. T., & Coutts, J. (1994). Empathy for the victim and sexual arousal among rapists and nonrapis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4), 435-449.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 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 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5), 571-583.
- Salkovskis, P. M. (1989). Cognitive-behavioural factors and the persistence of intrusive thoughts in obsessional proble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6), 677-682.
- Salkovskis, P. M., & Harrison, J. (1984). Abnormal and normal obsessions: a replic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2(5), 549-552.
- Salkovskis, P. M., Richards, H. C., & Forrester, E.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obsessional problems and intrusive thought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3(3), 281-299.
- Serin, R. C., Mailloux, D. L., & Malcolm, P. B. (2001). Psychopathy, deviant sexual arousal, and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3), 234-246.
- Smari, J., Sigurjonsdottir, H., Saemundsdottir, I. (1994). Thought suppression and obsession-compulsion. *Psychological Reports*, 75(1), 227-235.
- Tierney, D. W., & McCabe, M. P. (2001). An evaluation of self-report measures of cognitive distortions and empathy among Australian sex offende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5),

- 495-519.
- Tolin, D. F., Abramowitz, J. S., Przeworski, A., & Foa, E. B. (2002). Thought suppres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11), 1255-1274.
- Ward, T., Hudson, S. M., & Marshall, W. L. (1995). Cognitive distortions and affective deficits in sex offenders: A cognitive deconstructionist interpretation.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1), 67-83.
- White, L. A. (1979). Erotica and aggression: The influence of sexual arousal,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4), 591-601.
- Zimmer, D., Borchardt, E., & Fischle, C. (1983). Sexual fantasies of sexually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en and women: An empirical comparison.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9*(1), 38-50.

원고접수일 : 2004. 9. 2

게재결정일 : 2005. 1. 28

K C I

Characteristic of Negative Sexual Intrusive Thought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Sex Offender

Young-Eun Moon Sung-Ho Jin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pattern of negative sexual intrusive thought of OCD patients differs from that of sex offenders. 18 OCD patients, 35 sex offenders, and 36 normal persons were tested with the Sexual Cognitions Checklist(SCC) and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Sex version (ROI-v2).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positive sexual cognition was more experienced by sex offender than normal and OCD while negative sexual cognition was more experienced by OCD than normal and sex offenders. Second, OCD patients and sex offenders experienced more negative sexual intrusive thought than normal group. Third, OCD patients got higher cognition appraisal scores on moral TAF and the control over thought than normal group and sexual offenders and they tended to prefer using the negative avoidance control strategy and the self-blaming control strategy among the thought control strategies. Forth, sexual offenders had higher cognitive appraisal scores on the likelihood of TAF than normal and OCD. The results suggested that since OCD patients regarded sexual cognition as unacceptable, ego-dystonic, and unpleasant experience, they tried hard to control the thoughts. Rather, this increased the occurrence of the intrusive thought more frequently. Because sex offenders not only considered that their negative sexual cognition was restricted by the community and the law but also knew that their impulse was not approved, they experienced remarkable intrusive thought. Also the likelihood TAF in the cognitive appraisal of intrusive thought was the belief that the thought of bad thing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t, and meant the likelihood of putting into action of the unwanted intrusive thought. Therefore, for the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 important basic data to set up the differentiated therapeutic pla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inical groups.

Keywords :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ex offender, sexual cognition, sexual intrusive thought